남한테 착하게 마음을 쓰는 마음 보시가 첫째이다

☞ 19면에서 계속

체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앞에서 가로 걸리게 있는 허상이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게 한 발짝도 못 건너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로 끄달리고 또 건너갔다 하더라도 또 빠져 죽을까 봐 물을 못 건너가고, 타 죽을까 봐 불바퀴를 못 건너가고, 그렇기 때문에 천도가 생긴 것입니다.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장님을 이끌어 가지고 가는 도리가 있기 때문에 천도가 생긴 것입니다.

질문자1(남) 저희가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갖가지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이한 정신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자면 공부가 익어 가서 그런 것인지 혹은 아직 덜 익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공부 과정에서 그러한 경험이 자주 없는 경우는 그 무엇으로 자신의 공부가 익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큰스님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아까도 요약해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을 봤다고 하는 것도 놓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정신세계의 특이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내 마음속에서 빚어내는, 즉 말하자면 어떠한 물건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정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내 몸뚱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잔뜩 든 의식 그 자체가 모습으로 화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거를 다시 거기에다가 맡겨 놓는 것이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땅에 엎드러지면 엎드러지는 족족 땅을 딛고 일어나야 일어나지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일러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대로 거기에 맡겨 놔야 하고, 또 그러한 게 오는 사람은 오는 대로 또 수없이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다 다시 놓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 심이 천 심이요, 천 심이 일심이란 얘기가 있듯이 만 가지 법이 일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일심에다 다시 놓고, 일심 아닌 일심을 참구해야 됩니다.

질문자1(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법문하시는 중에 통 밖에 나와야 통을 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량적으로 그 말씀은 이치에 맞습니다만 실참의 경우에선 어떠한 경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통이란 무엇이며 통 밖은 무엇인지, 또 굴린다고 할 때의 굴려지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큰스님 통이라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몸뚱이 속에서, '내가 나다,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뭐를 줬지' 하며 나라는 걸 세우고, 모든 것을 나라는 고집으로써 상대해서 거기에 억눌려 있는 사람을 통 속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어디고 우주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넓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벗어나야만이 나를 굴릴 수가 있지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갇혀 있는데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벗어나는 길도 아니요, 벗어나지 않는 길도 아니요, 그러면 진짜 어떠한 게 벗어나는 길인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고 마음속에서 그대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굴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마음 이전의 마음을 깨달아야 물리가 터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의 마음을 깨달아야만이 그때에 진짜 정말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세계의 나와 물질세계의 내가 둘이 아니게 서로 상응 상조하는 작용을 한다면 바로 중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진짜 벗어나는 길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질문자1(남) 훌륭하신 말씀, 여러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자2(남) 부처와 보살은 마음을 낸 거와 안 낸 거 그 차이라고 하셨는데 삼계, 욕계·색계·무색계는 마음의 무위법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따로따로 우리가 이름을 가졌어도 한 놈이 그 일을 모두 하듯이, 그렇죠? 생활 속에서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듯이 그것은 이름일 뿐이니 오직 한마음 속에서, 이름을 배우지 말고 마음의 뜻을 알아야 그 도리를 알 것입니다.

질문자2(남) 그럼 사십구라는 숫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사십구 일 동안에 선정에 계셨고, 또 보통 천도를 할 때 사십구 일을 하고, 또 과거에 보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칠 칠이 다 갈 때까지 출입을 못 하게 했는데, 유위법으로 볼 때는 뭔가 사십구라는 게 뜻이 있지 않으냐 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큰스님 사십구라는 것은 사십구 일이 있는 것이 사십구 일이 아니라, 사십구라는 것은 삼 삼은 구를 말했고, 사십은 동서남북을 전체를 해서 한데 합친 사십구 일입니다.

질문자2(남) 그럼 칠 칠은 사십구가 아니고 사십하고 구하고 합한 겁니까?

큰스님 하하하. (대중 웃음) 하여튼 뜻으로 볼 때는 전체가 한데 합쳐서 과거 삼, 현재 삼, 미래 삼 이렇게 해서 구를 일심으로 돌려서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일심조차도 없을 때에 비로소 사십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가에서 '사십구 일이다' 이런다면 그 천도의, 식의 문이 열렸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2(남)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3(여) 스님, 제 막내아들이 회사에 넣어 놓으면 나오고 나오고 그래 가지고 방에 들어앉아서 사람 모인 데 안 가고, 좀 늙는 기가 많고 한숨을 쉬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산소 상석을 놔서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 뵈러 왔습니다.

큰스님 그것이 다른 게 아니죠.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찌 나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고가 많습니까? 병고도 많고 애고도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과거를 못 보걸랑은 현실을 보거라. 현실에 다가오는 걸 본다면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느니라. 현실에 어떡하는가 하고 너를 지켜볼 때에 미래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뺏어 갈 이치도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거를 녹이려면 내가 항상 말해 드리듯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란 얘깁니다. 한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악업 선업이 모두 들어 있는 그 의식들이 자기 자신으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쓰는 대로 움죽거려 주는 것이 이 모습과 생명과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이익되게 하시고 부드럽게 말도 해 주는 보시를 해야 하고, 행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행을 해야 하는 거죠. 남한테 착하게 마음을 쓰는 마음 보시가 첫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 보시는 못 하나마 마음 보시라도 해야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면 바깥으로 끄달려서 그 업보는 세세생생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마음 주인공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해 주시오.' 하지 말고요. 해 주시오 하면 둘이 되니까요. 장갑을 낀 손이나 장갑이나 똑같이 손이 속에서 움죽거려서 장갑이 움죽거리듯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업보를 무너뜨리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내 업보를 무너뜨려 주고, 나의 병고를 낫게 해 주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거기 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4(여) 큰스님,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즘에 제 심정이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공허하다는 느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지, 어찌하여 내 마음이 그러한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도 자꾸만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찌하여 생겨나는 것이며 어떻게 하여야만이 이런 공허함을 떨쳐 버릴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본래 마음은 체가 없어서 공허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고, 마음 쓴 것도 없어요. 그런 까닭을 알면 허망치도 않고 또 즐겁지도 않고 그대로 즐거워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 공허한 거 이런 것도 바로 네 속에서 나온 거야. 네가 있으니깐 네 속이 있고 네 속이 있으니깐 그 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 속에다가 '그 속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써,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 마음은 그렇게 체가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작용이 되니까 그대로 해 봐요. 한마음 주인공만이, 그런 거를 마음 내서 놓고 굴리면은 그대로 돌아가니까요. 그게 작업입니다.

>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내 업보를 무너뜨려 주고, 나의 병고를 낫게 해 주고,
>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 그러니까 진실하게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주인공에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